2007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1	⑤	2	④	3	⑤	4	③	5	①
6	④	7	④	8	②	9	④	10	⑤
11	③	12	②	13	①	14	④	15	③
16	①	17	④	18	⑤	19	③	20	⑤
21	③	22	①	23	②	24	④	25	②
26	③	27	④	28	②	29	②	30	①
31	②	32	③	33	④	34	④	35	②
36	④	37	③	38	⑤	39	①	40	③
41	⑤	42	①	43	⑤	44	③	45	②
46	⑤	47	④	48	②	49	⑤	50	②

[듣 기]

<1번> 이제 스포츠 중계의 일부분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계자(남) :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는 세계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가대표 김설아 감독께서 해설자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가 아름다운 회전 동작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동작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설자(여) : 예. 지금 보시는 회전 동작들을 스핀(spin)이라고 하는데, 한 쪽 다리를 축으로 하여 빠르게 도는 기술로서, 그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수가 처음에 보여준 회전은 업라이트(upright) 스핀에 해당하는 것으로, 똑바로 선 자세에서 한 다리를 일직선으로 곧게 들어 올려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중계자 : 그렇군요. 그럼 지금 하는 회전은 무엇인가요? 한 쪽 다리를 펴고 두 팔은 마치 새가 날갯짓하는 것처럼 벌려서 회전하고 있는데요.

해설자 : 저 회전은 상체와 한 쪽 다리가 수평으로 일직선이 되어 알파벳 티(T)자 모양처럼 도는 카멜(camel) 스핀이라고 합니다. 이를 응용해서 한 쪽 손으로 다리를 둥글게 잡은 상태로 회전하는 동작이 있는데, 이를 마치 도넛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도넛 스핀이라고 부릅니다.

중계자 : 명칭이 재미있군요. 지금 우리 선수가 카멜 회전에서 이를 응용한 회전까지 자연스러운 연결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지) 아~, 지금 또 다른 회전을 보여주는데요?

해설자 : 예, 저 회전은 등을 뒤로 젖히는 레이 백(lay back) 스핀에 해당하는데, 등을 뒤로 젖혀 회전하다가 다리를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고 두 손은 스케이트 날을 잡고 도는 회전입니다. 저 회전을 처음 시도한 선수의 이름을 붙여 비엘만 스핀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계자 : 네. 음악에 맞춰 연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네요.

1. [세부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스포츠 중계를 듣고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그림 ①은 업라이트 스핀, ②는 T자형 스핀, ③은 T자형 스핀을 응용한 도넛 스핀, ④는 레이백 스핀 중 비엘만 스핀에 해당한다. 그러나 앉아서 회전하는 스핀 동작에 대해서는 중계자나 해설자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2번> 이번에는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아메리카 인디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곰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곰을 사냥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곰의 머리만한 크기의 돌덩이를 준비하고, 거기에 곰이 좋아하는 달콤한 꿀을 잔뜩 바릅니다. 그 다음엔 꿀을 바른 돌을 곰이 서 있을 때의 머리 높이쯤으로 해서 튼튼한 나뭇가지에다가 매달아 놓고 기다리는 것이 곰 사냥 준비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꿀을 좋아하는 곰이 냄새를 맡고 나타납니다. 곰은 그 돌에 묻어 있는 꿀을 먹으려고 앞발을 들고 돌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돌을 곰이 잡기는 쉽지 않겠지요? 돌은 오히려 곰의 앞발 동작에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돌아오면서 곰의 머리를 때립니다. 다시 곰이 그 돌을 잡으려고 하면 또 돌은 좀 더 밀려갔다가 다가오면서 곰의 머리를 아까보다 더 세게 칩니다. 그러면 곰은 '저 놈이 나를 계속 때렸겠다. 어디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 볼까?' 하는 생각에 돌을 더 꽉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하지만 곰이 돌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돌은 더 큰 반작용으로 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곰은 되돌아오는 돌에 계속 맞아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마침내 쓰러지고 맙니다.

이렇게 저돌적인 곰의 성격을 이용해서 인디언들은 힘들이지 않고 곰을 잡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곰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2. [이야기가 주는 교훈 파악하기]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곰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야 하므로, 꿀을 먹겠다는 자신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결국 돌에 머리를 맞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곰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

<3번>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허리 디스크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이 말은 의학 전문 용어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추간판이 어디일까요? 여기 준비한 모형을 보세요. (휴지) 이곳 척추 뼈 사이 사이에 하얀 물렁뼈 같이 말랑말랑한 조직이 보이죠? 이 조직이 바로 추간판입니다. 그런데 이 추간판이 무리한 압력을 받아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옆에 있는 하반신 신경을 압박하므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 질환은 주로 중년층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10대 청소년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종합 병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디스크 환자의 연령별 발생 비율 중,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이쪽을 보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렇게 상체를 20도 정도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때, 허리에 가해지는 힘은 누운 상태에 비해 10배 정도 높아지므로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디스크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용 의자에 제가 한 번 앉아 보겠습니다. (휴지)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척추를 튼튼히 지탱해 줄 수 있는 등받이가 있고 약간 딱딱한 의자가 좋으며, 앉을 때는 책상과 무릎 사이 간격이 5센티미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혀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자세는 디스크 질환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의학 전문가들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지막한 산길을 걷는 등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해 주는 것이 허리 건강에 좋고, 커피나 탄산음료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므로 어릴 때부터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 [강연에 사용된 소재 추론하기]

[출제의도] 강연에 사용된 소재를 알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강연자는 척추 뼈 모형과 병원 환자 발생 통계 자료 제시, 모 고등학교의 수업 장면 영상 및 학생용 의자 등을 활용하여 강연하고 있다. 강연의 마지막 내용에서 의학 전문가가 조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번-5번> 이번에는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오늘은 법정 계량 단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담자(남): 안녕하세요.

사회자: 먼저 법정 계량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담자: 네. 법정 계량 단위란 일상생활 및 공공 분야에서 길이나 무게, 넓이, 부피 등을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 단위를 말합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계량법에 의거한 법정 계량 단위만을 사용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TV 브라운관의 크기 등을 나타내던 '인치'나, 주택이나 토지의 넓이에서 쓰였던 '평', 또 금의 무게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던 '돈'과 같은 단위를 이제는 법정 계량 단위인 '미터'와 '제곱미터', '그램' 등의 단위로 바꿔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자: 그런데 시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일부 국민들은 법정 계량 단위의 사용을 불편하게 느낀다고들 하던데요.

대담자: 하지만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 시에도 '평'은 잴 수 있는 도구가 없어 정확한 넓이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평형인데도 그 넓이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 주택과 관계된 서류를 작성할 때는 '평'을 다시 '제곱미터'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금의 무게 단위로 쓰던 '돈' 역시 '평'처럼 정확한 단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순금 '한 돈'은 3그램도 아니고 4그램도 아닌 3.75그램입니다. 그러다보니 금 '반 돈'은 1.875그램으로 계산되지요. 하지만 시중에 있는 저울은 대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밖에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반 돈의 무게를 잴 때,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곡물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쓰던 '되'나 '말' 등을 현재는 거의 쓰지 않고 모두 '그램' 단위로 쓰고 있는 것처럼, '평'과 '돈' 대신에 '제곱미터'와 '그램' 단위를 자주 쓰다 보면 이러한 법정 계량 단위가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회자: 아~ 그렇군요. 그럼 대담을 들으시는 분들께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대담자: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국민 여러분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대담의 중심 화제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담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대담에서 남자가 말한 핵심은 '법정 계량 단위를 왜 써야 하는가.'라는 내용이므로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의 필요성'이 답이다. 대담의 앞부분에 법정 계량 단위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은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한 답으로 보기 어렵다.

5. [대담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담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대담에서 남자는 주택 거래를 할 때, 금의 무게를 잴 때 등의 사례를 들어, 법정 계량 단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경험담이나 비유적인 표현 사용, 사회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모습, 예상되는 반론을 미리 제시하는 등의 말하기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쓰 기]

6. [그림을 통해 연상하기]

[출제의도] 그림의 속성을 통해 적절한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주어진 부분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주제에 맞게 연상 내용을 생성하는 문제이다. ②의 '섬돌'은 마루에 올라갈 때,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 계획하기]

[출제의도] 주제 탐색을 위해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글쓰기를 계획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동양화에서 여백을 중요시한다는 내용이고, (나)는 파레토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서 여백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회의 다수로서, 이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다수의 구성원들이다. 그런데 (가)의 '활용 방안'에서 '다수의 구성원 중 소수의 우수한 사람을 육성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나)의 상위 소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8. [개요의 수정 및 보완하기]

[출제의도] 주제에 맞게 개요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사용'에 관한 글로, 문제 제기 후, 실태를 밝히고, 문제 발생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개요를 수정 및 보완하는 문제이다. ㉡의 '그릇된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이라는 항목은 문제 발생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원인으로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방안에 해당하는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필요성 홍보'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의 '외래어의 사용'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국어처럼 사용되는 예이므로 상위 항목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비속어의 남용'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의 '지나친 불법 광고의 확산'은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 '바른 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에 해당하므로 '본론-3-나'의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은 적절하다. ㉤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청소년들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 노력의 촉구'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주제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의 '태양 같은 밝은 미래'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의 내용에서 격려의 의미가 있으며, '믿어', '맞이할 거야'에서 글의 어조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①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없으며, ②, ⑤에서는 어조가 유지되지 않았으며, ③에서는 어조도 유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격려의 내용도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각 수준별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지혜를 기르다'와 '인격을 수양하다'가 호응이 바르게 된 문장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에서 '바야흐로'는 '이제 막'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사리를 따져 보건대 마땅히, 또는 반드시'라는 의미를 지닌 '모름지기'로 바꿔 써야 한다. ㉡에서 두 번째 문단은 앞 문단의 내용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므로 전환의 접속어인 '그런데'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은 '말을 곱게 써야 한다'는 것으로 내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 '치켜올리다'는 '실제보다 높여 칭찬하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 칭찬하여 주다'의 뜻인 '추어올리다'로 바꿔야 한다.

11.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기]

[출제의도] 하위 관계와 주변적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러한 낱말 간의 의미 관계가 문장에서 적용된 경우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에서 '북동풍'이라는 의미를 가진 '높새바람'은 '바람'에 의미상 포함되는 것이므로, 하위 관계에 있다. 또한 '바람'은 본래 '기압의 변화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이라는 중심적 의미를 지닌 낱말로,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찾아왔어?'라는 표현에서는 중심적 의미가 확장되어 '들뜬 마음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반면 ①, ②, ④의 ㉠은 하위 관계로 쓰였고, ㉡은 중심적 의미로 쓰인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⑤의 ㉠은 상위 관계로 쓰인 단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어법 이해하기]

[출제의도] 어법에 맞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데'는 의존명사로 '경우나 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곳이나 처소'를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시가 복합]

[13~18] (가) 신경림, 「농무」 (나) 오장환, 「소야의 노래」 (다) 정철, 「사미인곡」

13. [시의 공통점 이해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현 방법과 시상 전개 방식, 화자의 정서, 어조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의 화자는 어려운 농촌 상황에서 인식한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나)의 화자는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 (다)에서는 임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힌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①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반면 ②는 (다)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④의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고, ③은 (나)에서 현실에 대한 분노가 비애로 변화되어 어조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공통된 화자의 태도 이해하기]

[출제의도] 화자가 보이고 있는 공통된 태도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A]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조적 한탄을 하고 있으며, [B]에서는 화자와 임의 거리가 멀고, 산과 구름으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임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줄 것인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A], [B]의 화자는 모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A]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B]는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미리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능동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기도 어렵다.

15.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반영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시의 소통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는 것은, 농민들이 풀리지 않은 울분과 한을 표출하려는 것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농촌의 풍속을 되살리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반면 ㉠의 '텅 빈 운동장'은 농무의 흥겨움보다는 산업화로 인해 허탈해진 농민의 슬픔과 한을 생각하게 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의 '술을 마신다'는 분장을 지우기도 전에 소줏집으로 몰려가 자신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고뇌를 술로 달래려는 농민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적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은 삶의 고통을 흥겨운 농무를 통해 극복하려는 한의 승화 과정으로, 농민들의 울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시어의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하기]

[출제의도] 시에 사용된 시어의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나)의 '진눈깨비'는 암울한 현실에 처한 화자의 비애를 심화시켜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구름'은 임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화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산인지 구름이 낀 것인지 험하고 험한 상황에서 화자에게 절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①의 진술은 적절하다. 반면 ②처럼 화자의 절망감이 드러나는 것이 곧 화자가 나약하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④의 '화자와 외부세계를 단절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구름'에만 해당된다.

17. [종합적 작품 감상하기]

[출제의도] 시의 요소를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쇠사슬 끄으는 소리'와 '산 짐승의 우는 소리'와 같은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비애감이 드러나 있으므로 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풋풋이 흰 눈이 흩날려' 길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정표 썩은 막대'조차 묻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ㄴ을 확인할 수 있다. '쓸쓸한 자유', '차디찬 묘속', '눈', '개울물도 파랗게 얼어' 등의 차갑고 무거운 시어를 통해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ㄹ의 진술은 적절하다.

18. [작품 비교하여 감상하기]

[출제의도]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에서 <보기>의 '밤비'는 화자가 임에게 보낸 묏버들에서 새 잎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전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①의 '묏버들'과 '님의 옷'은 화자가 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마련한 것으로, 임에게 보내는 화자의 사랑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 것이다. ②의 '묏버들'과 '범나비'를 통해 화자는 직접 임에게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④의 '새 잎'은 밤새 내린 비에 돋아난 새로운 잎이므로, 밤새도록 임을 그리워한 화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깊어가는 화자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다)의 '병'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 심화되어 편작과 같은 명의가 와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리움의 심화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 회]

[19-22] 출전 : 윤종용, 「파킨슨의 법칙」

19. [세부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충실히 파악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구성원들 사이의 혈연, 지연, 학연, 파벌 등의 결속을 '비합리적 의사 결정 요소'로 간주하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반목과 갈등의 굴레에 갇히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③의 '조직 내부의 인간적 결속이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0. [제시된 내용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을 다른 상황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에서는 '인력의 증가 요인', 즉 사람들이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인력이 증가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보기>는 인력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⑤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에서 <보기>는 인력 증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1.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본문을 읽고 반응한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은 다섯 번째 단락을 통해 볼 때,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신중한 결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 결정일수록 빠르게 해야 효율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반면 업무량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인력 증대를 지적했으므로, ①의 반응은 적절하며, 수평적인 팀 제도를 통한 의사 결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④의 반응도 적절하다. 또한 '책임 회피'나 '제 밥그릇 챙기기' 등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②와 ⑤의 반응은 적절하다.

22. [관련된 한자 성어 찾기]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한자 성어를 떠올릴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문맥 상, ㉠에서 파킨슨의 법칙은 비록 외국의 사례를 통해 만들어진 법칙이지만 그것의 교훈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다른 산의 나쁜 돌도 자기의 구슬을 가는 데 소용이 된다'는 '타산지석(他山之石)'과 가장 관련이 깊다.

② 금과옥조(金科玉條)는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 꼭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정을, ③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을 뜻한다. ④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의 뜻이고, ⑤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현대 소설]

[23-26] 출전 : 황순원, 「별 」

23.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소설은 아이의 행동과 생각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아이의 심리 변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통해 아이의 정신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다. 반면 인물의 외양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보이지 않으며, 어조와 시점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4.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출제의도] 소재를 다루는 인물의 행동 변화 양상에 따라 인물 심리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파묻었던 인형을 파내게 만든 것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아이의 내적 성장'이다. 즉 누이의 애정을 느끼며 전에 묻었던 인형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과수 노파의 말 때문에 누이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뀐 아이는 인형을 땅에 묻어 버림으로써 누이에 대한 거부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②와 ③의 진술은 타당하다.

25.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본문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에서 이미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아이의 의식적 기억 거부'를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던 아이가 당나귀에게 화풀이를 하며 누이를 잃은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아이는 죽은 누이가 '별'이 되어 자신의 눈에 내려왔다고 생각한다. 비록 어머니와 같은 존재 의미까지는 아니나, 아이가 누이를 '거부해야 할 존재'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26. [대상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상이 지닌 인물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아이'와 <보기>의 '화공'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함께 하기를 소망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부재의 대상이자 그리움의 대상이다. 반면 자아가 성장해 가는 매개체가 되는 것은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 위로를 주는 존재인 것은 '화공'에게만 해당된다.

[기 술]

[27-29] 출전 : 최원석, 「DVD의 300배 용량 '홀로그래피디스크'」

27.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본문에 사용된 내용의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에서는 간섭 현상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홀로그래피디스크에 적용하여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다는 특성과 디스크의 일부만 가지고도 전체에 대한 정보의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기존의 저장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8. [자료를 통한 정보 이해하기]

[출제의도] 본문의 정보를 제시된 자료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고분자층, ㉣은 참조광과 물체광이 만나 고분자층에서 간섭현상을 일으켜 정보가 기록되는 곳이다.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정보를 읽을 때는 기록할 때 썼던 것과 동일한 각도로 참조광을 비추면 된다고 했으므로 기록된 정보를 읽기 위해서는 ㉡을 기록할 때와 같은 각도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을 같은 각도로 비추어야 한다. 따라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9.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홀로그래피디스크의 특성은 1TB 이상의 엄청난 용량을 담게 해 준다는 것과 디스크의 일부라도 있으면 전체에 대한 정보의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ㄱ은 저장 용량에 대한 예이며 ㄹ은 정보의 재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반면 ㄴ, ㄷ은 내용과 관련이 없다.

[언 어]

[30-32] 출전 : 방운규, 「현대국어 표어 연구」

30.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본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은 사전마다 다르게 정의된 표어 개념의 상이성을 해소하고자 생산자, 수용자, 형식, 내용상의 특성을 살펴 마지막 문단에서 표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은 '표어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의 글이라 할 수 있다.

31.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표어의 개념을 참고할 때, 표어는 '정부 및 사회 단체가 대중에게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호소하거나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ㄱ, ㄴ에서 생산자는 공공 기관이며 수용자는 대중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②의 진술은 부적절하다. 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발명에 힘쓸 것을 장려하는 내용이고, 형식은 3·4조, 4·4조의 음수율, 4음보의 율격과 16자로 압축된 전형적인 표어 형식이기 때문에 ③, ⑤의 진술은 적절하다.

32.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내용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편들어서 보호하는 옹호로 ③은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옹호의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33-35] 이범선 원작, 나소운·이종기 각색, 「오발탄」

33.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출제의도] 시나리오를 읽고 감상을 적절하게 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해설] '오발탄'은 '철호'라는 인물이 전후의 힘든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과 걱정을 짊어진 샐러리맨으로 힘들게 살다가 삶의 방향점을 잃고 '오발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범선의 소설 작품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것이다. '철호'의 치통은 절망적이고 힘든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ㄱ은 적절하며, '철호'가 부르짖는 '가!'라는 외침은 처절한 현실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부르짖는 '철호'의 감정 표출이므로 ㄴ의 진술도 적절하다. ㄹ에서 '오발탄'은 '잘못 쏘아진 총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철호'가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인물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가가 설정한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철호'의 아내는 이미 죽었으며, 더구나 '철호'와 '아내'가 평소 행복한 삶을 꿈꾸며 '해방촌'을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소망했었다는 근거를 본문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ㄷ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34. [연출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의 촬영 시 연출자가 지시할만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에서 'S# 120'의 '운전수'는 'S# 117'에서 알 수 있듯이 '철호'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수'에게 '철호'를 따뜻한 정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도록 하라는 연출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①의 경우 'S# 116'에서는 '철호'가 치과에서 나와 괴로워하는 모습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클로즈업한 후, '철호'가 피를 흘리며 어지러워하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움직여 촬영하는 'PAN.(Panning)'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리고 ⑤의 'S# 121~ S# 122'에서는 '철호'의 괴로움과는 무관하게 도시의 소음이 번져가는 초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유성이 길게 꼬리를 무는 것을 표현하고, '철호'가 탄 차가 목적지도 모르는 채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은 철호의 처절한 상황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고 있으므로 화면이 차차 어두워지는 'F.O.(Fade Out)' 기법을 활용하여 장면을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하다.

35.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윌리 로만'은 평소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물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 아들에게도 그 신념을 불어 넣기 위해 힘썼다. 그는 평소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 주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므로 ②는 적절하지 못한 진술이다. 반면 ①은 직면한 현실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렵고 고단한 상황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철호'에게만 해당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며, ④에서 '철호'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러 이를 뽑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윌리 로만'은 두 아들이 그의 기대를 저버렸고, 본인도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등 한계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아 두 사람 모두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인 문]

[36-38] 출전 : 조복희 외, 「인간발달」

36. [중심 내용 추론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여 중심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아동이 겪는 인지적 갈등은 기존에 만들어진 아동의 사고 능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인지 단계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본문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인지적 갈등은 인지 발달을 이루는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④는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7.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본문에 제시된 주요 개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동화'는 이미 경험 또는 학습으로 이루어진 개념, 즉 기존의 도식에 맞게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에서 형제는 평소에 동일한 모양의 컵에 담긴 우유의 높이를 보고서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구별하였다. 그러다가 엄마가 서로 모양이 다른 컵에 우유를 따랐을 때, 길쭉한 모양의 컵에 우유를 받은 형이 ⓒ의 '자기 쪽 우유의 높이가 더 올라갔으므로, 우유의 양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여 매우 기뻐하였다'는 것은 기존의 도식으로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동화의 개념과 관련된다.

38. [어휘의 의미와 용례 이해하기]

[출제의도] 글에서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용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되다'는 '해결'이라는 명사에 붙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용례에서 이러한 경우는 c이다. 또한 ㉡의 '되다'는 보조동사로서 '그러한 상태에 놓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용례에서 이러한 경우는 a이다.

[고전 소설]

[39-42] 출전 : 작자미상, 「흥부전」

39.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인물의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놀부는 [A]에서 동생을 홀대하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에서 흥부는 성인들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가난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아내를 위로하려는 생각일 뿐이다. 따라서 ①의 흥부에 대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A]와 [B]는 모두 다양한 사례를 대구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②와 ③의 진술은 적절하다.

40. [표현상의 차이 파악하기]

[출제의도] 특정 장면을 묘사하는 두 부분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에 비해, 흥부가 삼문 틈으로 매 맞는 모습을 보는 장면과 꾀수아비를 묘사하는 부분 등을 통해 인물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보다 넓게 나타나 있으므로 ③의 표현이 적절하다. 반면 <보기>에서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적인 표현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41.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매품팔이에 실패하고 돌아와 울며 말하는 흥부를 맞이하는 흥부 아내는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한 한과 깊은 슬픔을 토로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에서 당대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우므로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2.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를 비교하여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에서 흥부 아내는 자신이 가모(家母)이면서도 남편과 자녀를 잘 부양하지 못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자책의 태도는 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 술]

[43-46] 출전 : 송문석, 「예술의 기호, 기호의 예술」

43. [글의 중심 화제 찾기]

[출제의도]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미술텍스트에서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 요소들로, 시간성을 약화시킨 원근법, 입체성을 약화시킨 공시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원근법은 거리로써 대상을 식별하고 있으며, 공시법은 거리와는 무관하게 동시에 발생하는 대상을 한꺼번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미술 텍스트에서 원근법과 공시법의 차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중심 화제로 삼고 있다.

44. [핵심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을 읽고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공시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고, 대상에 대한 거리가 고려되지 않으며, 인지된 모든 대상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정서 중심의 심리적 태도가 중시된다. 반면 ③의 '경험적 학습에 따른 대상의 식별'은 원근법의 특성이다.

45.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주어진 정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원근법이 잘 드러난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작품에서 대상의 초점은 '마른강의 다리'로 시각적 감각 기관에 의지하여 풍경 대상의 크기를 달리하고 있다. 반면 ②의 진술은 공시법에 의한 감상 방법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46. [문맥을 고려한 내용 추론하기]

[출제의도] 문맥적 흐름을 고려하여 특정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예술에서 3차원적인 현실을 평면 위에서는 2차원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진술하고 있는 부분으로, 3차원적인 대상을 2차원 평면에 정지한 상태로 그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과 학]

[47-50] 출전 : 김태일, 「운동 끝없는 공간 이동」

47.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출제의도] 제시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투수가 공을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 취하는 몸짓이 어떻게 속도를 만들어 내며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원리와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야구에서 오버핸드스로와 언더핸드스로의 비교를 통해 운동량 보존의 법칙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48. [세부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충실히 파악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몸을 지지하는 발에서 무게 중심이 상대적으로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멀리 벗어나므로 몸의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은 언더핸드스로 동작의 특징이다. 따라서 ②는 제시된 정보와 다르다.

49. [핵심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도식과 관련지어,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투수가 투구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속도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투구 과정에서 공 자체의 질량은 변화가 없으므로 ⑤의 'ⓐ와 ⓒ 사이에서 공의 질량은 점점 가벼워진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반면 ⓑ는 운동량이 극대화된 지점으로,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이고, ⓒ는 투수의 운동량이 공에 그대로 전달되어 일정 시간 동안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날아가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5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낱말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하게 사용된 경우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②의 예와 유사하다. 반면 ①은 '(일자리나 소득원을) 확보하다. 장만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예이고, ③은 '일, 기회 따위를 얻다.'는 뜻으로 사용된 예이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